



2030부산세계박람회 최종 유치교섭 마무리

- 마지막 순간까지 한표라도 더 확보하고자 총력 경주 -

-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표단은 27일 하루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.
 -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회원국 대표 접견과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오찬 세미나*,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 개최 축하 리셉션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, 기술과 경제개발, 포용적 성장 등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, 대한민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.
 - * (주제)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의 역사, 그리고 부산엑스포의 주제 및 비전
 - 또한,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막판까지 최종 교섭을 펼쳤다.
- 엑스포 유치를 위해 23일부터 파리 현지를 방문 중인 주요기업 고위급 인사들도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수요를 토대로, 부산엑스포를 통해 확대될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며 우리 지지 확보에 주력했다.
- 한편,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, 몽마르뜨 언덕 등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홍보에도 주력했다.
- 오늘로써 '22년 7월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 간의 대외유치교섭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. 정부는 오늘까지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우향제	(044-200-2211)
		담당자	전문위원	김태민	(044-200-2220)
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철	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철순	(044-200-2135)
	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	책임자	팀 장	김덕구	(02-2036-98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훈	(02-2036-9826)
	부산시	책임자	과 장	명지정	(051-888-6450)
		담당자	담당자	문정윤	(051-888-6454)
	대한상의	책임자	팀 장	임충현	(010-2759-7007)
		담당자	담당자	이대환	(010-2338-6723)

